	보도자료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	보도 시점	'07.10.18(목)조간부터		
			자료배포일	'07.10.17(수)	매 수	총2매
과학기술부 정책홍보 담당관실	담 당	연구개발조정관실 생명해양심의관실	심의관	김성수	02) 2110-3720	
			사무관	백일섭	02) 2110-3722 011-9577-9986	

세계 수준의 신약개발 위해 예산 늘린다

- '08년도 신약개발 R&D 예산 921억원 투입 -

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'08년에 총 9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.

과학기술혁신본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지부, 산자부, 과기부의 신약개발 분야 주요 10개 R&D 사업 예산을 '07년 605억원에서 '08년 921억원으로 52% 증액하기로 하였다.

이번 예산 편성은 지난 7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'한미 FTA 대응을 위한 범부처 신약개발 R&D 추진계획'에 따라 그동안 BT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신약개발로 실용화하고 제약산업을 국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.

금번 예산 편성안은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을 체계화했으며, 신약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문 사업 운영을 통해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을 보다 전문화/효율화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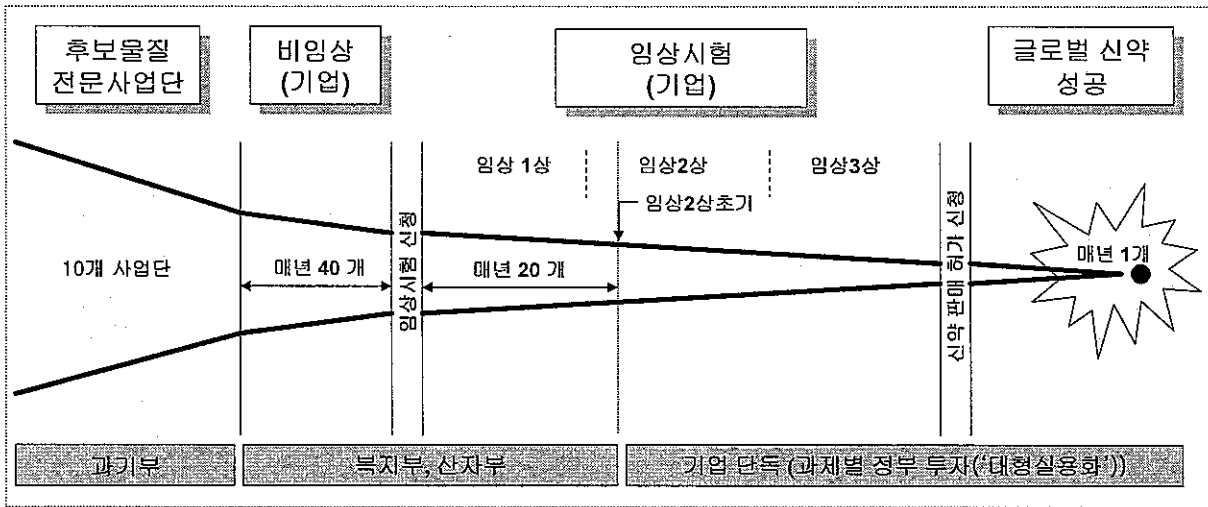
정부는 신약개발 지원 체계화를 위해 신약 후보물질도출에서

비임상시험, 임상시험에 이르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복지부·산자부* /과기부** 역할을 구분하고 신약개발 성공 확률에 따른 단계 별 지원 소요액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예산 규모를 조정하였다.

* 산자부/복지부 : 기업의 '비임상/임상시험' 지원 (08년 : 640억원)

** 과기부 : 5개 전문 사업단 운영 등 '후보물질도출' 지원 (08년 281억원)

< '10년 이후 정부 신약개발 지원 체계 >



또한 신약개발 지원의 전문화/효율화를 위해 기존 소규모 과제를 축소*하여 글로벌 수준의 대규모 신약개발을 위한 별도 전문 사업**을 확대하였다. (상세내역 별첨)

* 소규모 과제 축소 : (07년) 246억원 → (08년) 173억원 (73억원 감액)

** 별도 전문 사업화 : (07년) 245억원 → (08년) 627억원 (382억원 증액)

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신약개발 역량을 갖추는 때 까지 후보물질도출에서 비임상·임상시험, 상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을 지속하여 2016년 이후 매년 연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의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